

2019년 2월 23일 시행 / 2019년 서울시 1차 9급 필기시험

국어 기출해설 (A책형)

해설 - 유두선 교수(지티고시)

문 1. 음운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리의 강약이나 고저 등은 분절되지 않으므로 음운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음운은 의미를 구별해 주는 최소의 단위이므로 최소 대립쌍을 통해 한 언어의 음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음운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라기보다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라고 보아야 한다.

1. 정답 ①

해설 영어에서는 강약, 중국어에서는 고저가 뜻을 구별해주는 변별적 자질이 있어 음운에 해당한다.

문 2. 다음 문장 중 어법에 가장 맞는 것은?

- ① 금융 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 ②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서류는 무효입니다.
- ③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 ④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2. 정답 ①

오답풀이 ② 내용의 정정 -> 내용의 정정이 있거나

③ '다시 한번 더'는 구로 사용되어 '한번'은 붙여 쓴다. 보여집니다(이중피동) -> 보입니다.

④ 것이었고 -> 것이므로

문 3. 속담과 한자성어의 뜻이 가장 비슷한 것은?

- 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순망치한(唇亡齒寒)
- ②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하로동선(夏爐冬扇)
- ③ 우물 안의 개구리-하충의빙(夏蟲疑氷)
- ④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설중송백(雪中松柏)

3. 정답 ④

해설 하충의빙(夏蟲疑氷)은 여름의 벌레는 얼음을 안 믿는다는 뜻으로 견식이 좁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오답풀이 ① 순망치한 : 입술이 사라지면 이가 시리다. 서로 의지하는 밀접한 관계

② 하로동선 : 여름의 난로, 겨울의 부채, 전혀 소용없는 물건을 뜻함

③ 설중송백 : 소나무와 잣나무는 눈 속에서도 그 푸르름이 변하지 않는다. 지조 있는 사람을 뜻함

문 4. <보기>는 복수 표준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 ① 가는허리 / 잔허리
- ② 고깃간 / 정육간
- ③ 관계없다 / 상관없다
- ④ 기세부리다 / 기세피우다

4. 정답 ②

해설 ② 정육간은 사전에 없는 단어이다. 고깃간과 푸줏간이 복수 표준어

문 5. <보기>의 로마자 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ㄱ. 오죽헌 Ojukeon
ㄴ. 김복남(인명) Kim Bok-nam
ㄷ. 선릉 Sunneung
ㄹ. 합덕 Hapdeok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5. 정답 ③

오답풀이 ㄱ. 오죽헌 : Ojukheon ㄷ. 선릉 : Seolleung

문 6.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① 황조가와 더불어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서사시다.
- ② 한시와 함께 번역한 시가가 따로 전한다.
- ③ ‘물’의 상징적 의미를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몇 번을 죽어도 충성의 마음이 변치 않음을 노래하고 있다.

6. 정답 ③

해설 ③ 물은 죽음, 이별을 상징한다.

오답풀이 ① 최고(最古)의 개인 서정시 ② 한시로만 전해지고 있다. ④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문 7. <보기>의 두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 임 그린 상사몽이 ㉠실솔의 녀이 되어 가을철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나) 이 몸이 죽어져서 ㉡접동새 녀이 되어 이화 핀 가지 속잎에 싸였다가 밤중만 살아서 우리 임의 귀에 들리리라.

- ① ㉠은 귀뚜라미를 뜻한다.
- ② (가), (나) 모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 ③ ㉡은 울음소리가 돌아갈 귀(歸), 촉나라 촉(蜀), ‘귀촉 귀촉’으로 들려 귀촉도라고도 한다.
- ④ (가), (나)의 작가는 모두 미상이다.

7. 정답 ④

해설 ④ (가)는 ‘박효관’의 작품이다.

문 8. 밑줄 친 단어의 형태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멀리서 보기와 달리 산이 가팔라서 여러 번 쉬었다.
- ② 예산이 100만 원 이상 모잘라서 구입을 포기해야 했다.
- ③ 영혼을 불살라서 이론 깨달음이니 더욱 소중하다.
- ④ 말이며 행동이 모두 올발라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다.

8. 정답 ②

해설 ② ‘모자라다’가 기본형이므로 ‘모자라서’로 써야한다.

①, ③, ④는 모두 르 불규칙 용언이므로 ‘르르’로 활용한다.

문 9. 한자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장(延長)’, ‘하산(下山)’은 ‘서술어+부사어’의 구조이다.
- ② ‘인간(人間)’, ‘한국인(韓國人)’의 ‘인’은 모두 어근이다.
- ③ ‘우정(友情)’, ‘대문(大門)’의 구성 성분은 비자립적 어근과 단어이다.
- ④ ‘시시각각(時時刻刻)’, ‘명명백백(明明白白)’은 고유어의 반복합성어 구성 방식과 다르다.

9. 정답 ②

해설 ② ‘인’은 모두 단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잇다(서)+길게(부) 내려오다(서)+산에서(부)

- ③ ‘우’와 ‘대’는 뒤에 오는 단어를 수식한다. 따라서 비자립적이다.
- ④ 같은 단어의 반복

문 10. 다음 중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 ② 데칸 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 ③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 ④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만들기를 하였다.

10. 정답 ①

해설 ① ‘물속’은 사전에 표제어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풀이 ② ‘데칸고원’ 외래어표기에서는 붙여 쓴다. ③ ‘만큼’은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④ ‘쓸모없는’은 붙여 쓰나 ‘쓸모 있는’은 띄어 쓴다. ‘주머니 만들기’는 띄어 쓴다.

문 11.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 ① 떠나려갔다 ② 따라 버렸다
- ③ 빌어먹었다 ④ 여쭙어봤다

11. 정답 ①

해설 ① 뜨+어+내리+어+가+았+다(7개)

오답풀이

- ② 따르+아+버리+었+다(5개)
- ③ 빌+어+먹+었+다(5개)
- ④ 여쭙+어+보+았+다(5개)

문 12.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 아닌 것은?

- ① 묻다(問) ②답다(暑)
- ③ 낫다(愈) ④놀다(遊)

12. 정답 ④

해설 ④ ‘놀다’는 ‘ㄴ’앞에서 ‘ㄹ’이 탈락된다. 불규칙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ㄷ불규칙 ② ㅂ불규칙 ③ ㅅ불규칙

문 13. <보기>의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를 恨(한) 호노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호는 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귀 뉘 사해 닳드니.

- ① 시인은 사육신의 한 명이다.
- ② 중의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중국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 ④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13. 정답 ④

해설 ④ 성삼문이 자신의 절개를 노래한 것이지 복수를 다짐한 내용은 아니다.

문 14. <보기>의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우는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至지국慮총 至지국慮총 於어思스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썩노느다.

넌넝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弱약삿립은 씨 잇노라, 綠綠蓑사衣의 가져오나.
 至지국慮총 至지국慮총 於어思스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는 내 좇느가 제 좇느가.

- 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④ 후렴구를 제외하면 전형적인 3장 6구의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14. 정답 ①

해설 ① 자연친화의 삶을 노래한 것이다. 충성과 관계 없다.

오답풀이 ② ‘우는 거시’ 청각이미지 ③ 첫수의 초장, 둘째 수의 초장 중장에 대구법 ④ 후렴구를 빼면 연 시조 형태다.

문 15. <보기>와 가장 관련이 없는 고사성어는?

<보기>

섰 실은 천리마(千里馬)를 알아 볼 이 님 으리
 십년(十年) 역상(上)에 속절없이 다 늙도다
 어디서 살진 쇠양마(馬)는 외용지용 하느니

- ① 髀肉之嘆
- ② 招搖過市
- ③ 不識泰山
- ④ 麥秀之嘆

15. 정답 ④

해설 뽕갸 실은 천리마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노래

④ 맥수지탄은 망국의 한을 말함

오답풀이 ① 비육지탄 : 뜻을 펴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는 것을 한탄함 ② 초요과시 : 허풍을 떨며 요란하게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으로 ‘식양마’를 나타냄 ③ 부지태산 : 태산을 알아보지 못함

문 16. 어휘의 뜻풀이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멸차다: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매우 많고 풍족하다
- ② 상고 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 ③ 안다미로: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 ④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가며 살피다

16. 정답 ③

해설 ③ 안다미로 : 담은 것이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문 17. <보기>는 「훈민정음언해」의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랏 말쑥미 中國에 달아 文字와로 서르 스뭇디 아니
홀썩 이런 견츠로 어린 百姓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밋춤내 제 브들 시러 퍼디 몬홀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하야 어엇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字를 텡그노니 사름
마다 히여 수비 너겨 날로 뿌메 便安키 호고져 홀 썩르
미니라

- ① <보기>는 한 문장이다.
- ② 밑줄 친 ‘시러’는 한자 ‘載’에 해당한다.
- ③ 밑줄 친 ‘내’는 세종대왕이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 ④ ‘ㅏ’와 ‘ㅑ’는 발음이 같지만 단어들을 구별하기 위해 사용했다.

17. 정답 ③

해설 ③ ‘내’는 1인칭으로 세종을 뜻한다.

오답풀이 ① 두 문장이다. ② ‘得’에 해당한다. ④ 발음이 다르다

문 18. <보기>의 밑줄 친 시어 가운데 내적 연관성이 가장 적은 것은?

<보기>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거린다.
 열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다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디치고,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백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의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 ① 차고 슬픈 것 ② 새까만 밤
 ③ 물먹은 별 ④ 너

18.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모두 죽은 아이의 이미지.

문 19. <보기>의 지문은 설명문의 일종이다. 두괄식 설명문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논리적 전개에 가장 부합하게 배열한 것은?

<보기>

㉠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 한다. 띄어 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은 문장 구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다.
 ㉡ 문장은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이다. 문장은 일정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도 있다.
 ㉢ 띄어 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남자가 아주 멋지다.’라는 문장에서 ‘그 남자가’와 ‘아주 멋지다’는 각각 두 어절로 이루어져서 주어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 것을 구(句)라고 한다.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되지만,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 ① ㉠-㉡-㉢-㉣

② ㉠-㉡-㉢-㉣

③ ㉣-㉠-㉢-㉡

④ ㉣-㉢-㉠-㉡

19. 정답 ③

해설 ㉣에서 문장과 ㉠의 문장이 연결된다. ㉢ 어절이 모이는 경우와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인 것을 ‘구’라 한다가 서로 연결 된다.

문 20. <보기>의 설명에 활용된 방식과 가장 가까운 것은?

<보기>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희도 자신이 명덕(明德)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新民)이다.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고본(古本) 대학의 친민(親民)을 신민(新民)으로 고쳤다.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반면 정약용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孝), 제(弟), 자(慈)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 해석한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효도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여 자애의 덕행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 친민이다.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① 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뉜다.

② 소는 식욕의 즐거움조차 냉대할 수 있는 지상 최대의 권태자다.

③ 언어는 사고를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예로 무지개 색깔을 가리키는 7가지 단어에 의지하여 무지개 색깔도 7가지라 판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④ 곤충의 머리에는 겹눈과 홑눈, 더듬이 따위의 감각 기관과 입이 있고, 가슴에는 2쌍의 날개와 3쌍의 다리가 있으며, 배에는 끝에 생식기와 꼬리털이 있다.

20. 정답 ③

해설 주희, 정약용의 견해를 예로 들고 있다. ③번도 예시 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구분 ② 역설 ④ 분석